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공식카페: [www.noworry.kr](http://www.noworry.kr) 전화: 02-797-4044~6 팩스: 02-797-4484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메일: [noworry@noworry.kr](mailto:noworry@noworry.kr)

##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기타의견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영재학급을 뽑을 때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지원서를 줍니다. 영재교육이 확대된다면 안 그래도 힘든 아이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재검토 해주세요. 학생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사교육의 확장을 촉진시킬 영재교육법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도 어쩔 수 없다며 아이들을 닦달하고 채찍질하는 태도는 제발 버리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영재학교 설립 허가는 절대 반대 하지만 허가가 났을 시 많은 부모들이 또 얼마나 아이들을 못살게 굴지 눈에 흰하네요. 오늘 만난 학교엄마들의 태도와 인식을 보고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참 불쌍합니다. 휴.

-허가 안할 걸 왜 법을 개정하나? 앞뒤가 다르다

-일단 유, 초, 중학교에까지 영재학교를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 실망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현재도 아이들을 불해하게 만들고 있는 한국 교육을 더 위기로 몰아넣고 아이들의 삶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영재학교 설립기반이 되는 시행령 개정을 꼭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미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과도한 사교육현장으로 내몰 것이 뻔한 이런 법 개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법안 발의 반대합니다. 만들어지는 영재가 과연 진짜 영재인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교육경쟁을 유발하는 정부의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서울고대 영재교육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형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재교육에(특히 선발에) 참 허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재가 영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고득점자가 영재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까지 내려간다는 건 너무나 슬픉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뒷전인 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이익세력만을 위한 것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다.

-설립 가능하도록 시행령 고치게 되면 수많은 사교육업체들의 로비와 요구들이 있

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우월집단에 속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은 부모의 성화와 어려운 학업과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며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구분 짓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

-교육을 경쟁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접근은 정말 과잉경쟁,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영재교육자체가 공교육에 어긋나며 학생 개개인에게 위화감 및 자기 존중감을 저하시킬 것이다. 영재교육을 빌미로 해서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영재를 위한 영재교육이 아니라 영재를 길러내는 지금의 시스템을 유·초등까지 확대한다면 사교육이 현재보다 증가함은 물론 경쟁적인 가계의 사교육비 소비를 부추기고 결국엔 가계의 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입시과열로 인한 사교육 증가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너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영재유치원, 초등 등 아직 뇌가 제대로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영재학교가 생긴다면 사교육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것 같다. 지금도 너무 심각하다.

-특목고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은 대입 특히 수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보내려는 부모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위 학급 영재나 지역영재, 각 대학에서 진행되는 영재 교육원에 보내기 위해 많게는 몇 학년씩 선행을 시키고 있는 실정(사실상 선행이 없이는 이런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에서 영재교육의 확대는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영재학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교육은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영재학교를 설립하게 된다면 과연 가난하지만 영재인 아이를 발굴하여 입학시킬 수 있을까? 상위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차별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평등하게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만약 그 기준이 나온다면 사교육 열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교육 더 증가될 게 뻔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사교육이 불을 보듯 늘어갈 것이고 허가계획이 없는 설립 시행령은 왜 내려는지 꿈수가 보이네요. 시간이 지나면 외고, 과학고처럼 입시수단이 되겠죠.

-타고난 영재들을 위한 교육체계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영재교육은 사교육의 과열과 사교육비의 증가만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영재학교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교육부에 대한 의견=**

- 설립을 허가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획은 왜 세우는지.
- 허가 안할 걸 왜 법을 개정하나? 앞뒤가 다르다
- 설립 허가 계획이 없다면서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는 까닭은 뭔가요?
- 영재학교 설립 허가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 몇 년 후에 없다고 할 수 있지?
- 허가를 안 해 줄 것인데 굳이 법을 만드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제발 학교의 계층 계급화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경쟁의 연속, 너무 힘듭니다.
- 지금의 정부와 교육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는데, 영재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면서 실제 허가는 없을 것이라는 데 어떤 저의가 있는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허가를 하지 않을 법은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영재학교가 하나의 스펙으로서 사교육을 부추길 것임은 관련 지식이 없다 해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영재학교 설립 허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관련한 요구가 이어지면 여론을 내세워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이번 시행령의 정부 측 목적이 뭔지 궁금하네요.
- 시행령은 고치는데 설립허가는 안 해준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영재는 아이큐 100 안팎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험에 통과한 일부 학생만 특별한 교육혜택을 주는 것 잘못 된 일이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 우리 아이가 참가해 봤는데 진짜 영재교육인지 알기 힘들었다. 지금 있는 교육 기관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란다.
- 설립허가 계획이 없다가. 생기겠쥬. 현재의 영재고는 진짜 영재를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 일뿐. 그 중 영재가 몇이나 될까요? 영재를 어떻게 지필시험으로 골라낼 수 있나요?
- 현 정부는 약속을 지킨 적이 없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이기 때문에 잠시 진정시킨 뒤 잠잠해지면 그 틈을 타서 처리할 거라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영재학교설립 허가를 할 계획이 없다면서 뭐 하러 시행령을 고친대요? 할 일도 어지간히 없네요. 세 살짜리 아이도 안 믿는 말을 하고 있군요.ㅉㅉ
- 학교설립허가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왜 설립 가능하도록 시행령은 고친다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타고난 영재성을 키워주기 위함이라면 찬성한다지만 결국 사교육에 더 목메며 아이는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네요.
- 시행령을 고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2012년 영재학교 첫 신입생선발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특목고 열풍으로 고통 받은 아이들과 무너진 교육을 잊지 말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재학교설립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행령은 왜 고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사회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슬픔입니다.

-영재학교 설립 허가 계획은 없다고 하면서 설립 가능 시행령은 가능하도록 고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한다. 이런 앞뒤 안 맞는 정부방침 한심할 뿐입니다.

-설립 가능하도록 시행령 고치게 되면 수많은 사교육 업체들의 로비와 요구들이 있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우월집단에 속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은 부모의 성화와 어려운 학업 과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며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구분 짓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상위권 이이들을 영재교육이라고 시키는 것은 영재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청 및 학급 단위 영재교육은 우수한 아이들을 거짓말하는 교육에 참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영재학급 및 교육청영재 과제 발표대회는 관련 사기업에 의뢰한 과제 및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과제 발표가 상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비교육적 행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영재교육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사교육을 위한 학원 사업자만 배불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성적과 기타 명목으로 학생들 간의 경쟁과 분리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즉, 영재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아무튼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좇아 살아가게 할 것 인지를 더 고민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영재학교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정말 특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특수' 교육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립대학이나 교육청이 영재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요새 부모들의 욕심이... 혹시 내 아이가 영재가 아닌가하여 유아 때부터 사설 영재 학원에 다니더군요. 결국 오랜 시간, 돈 낭비하고 아이들 학습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후유장애까지..... 정부에서 유치원부터 공식 설립허가를 내게 된다면 영재 사교육 광풍이 일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명문대를 향한 입시 관문에 줄을 서려는 대한민국 부모와 아이들은 급증 또는 영재학교 입학에 위한 사교육시장이 급성장할 것입니다.

-영재 학급에 지원되는 예산이 비리로 연결되고 전체 학생을 위해서는 체육교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역차별 또한 큰 문제이고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교육에 관해 학부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면 검정고시/조기진학 등으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 부모의 재력에 따라 만들어진 영재가 대다수.
- 우리나라 타고난 영재가 얼마나 되기에 학교까지 설립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타고난 영재들은 영재원에 있어서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공부형 영재라고 합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정책입니다.
- 영재는 자연스런 자신의 취향을 스스로 찾아 자유롭게 성장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
- 영재학교는 영재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내 아이를 영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욕심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과도한 욕심으로 더 많은 사교육을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대한민국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학습은 교권 침해라고 하며 공부 못하는 나라를 자처한 독일의 교육,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핀란드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전부이고 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칭찬하며 그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 주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영재교육원, 영재고에 보내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교육의 실태와 아이들이 겪는 힘듦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영재가 되기 위해 겪는 고통을 제발 한번쯤 생각해주길 당부한다. 과도하게 학업에 내몰린 아이들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못 봤다.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 좀 해줬으면!
- 초등학교 영재교육 담당했습니다. 영재반 아이들은 성적우수자이지 영재인 아이들 없었습니다. 부모의 관심으로 들어온 영재반 아이들. 굳이 나라에서 돈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애들 다 영재 만들려고 들 거예요. 대한민국엄마들 교육 열은요. 초등학교 영재학급운영, 반대합니다.
- 현재 영재시험도 학원가서 배우고 친다는 판에..... 영재아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네요. 또한 영재를 교육시킨다는 방향과 그 의도가 외곡 되지 않았나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 진짜 영재인지, 포장지만 영재인지.....
- 영재라는 의미를 우리 사회는 잘못 이해하는거 같다. 타고난 영재성을 키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학원들이 영재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수많은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 너도나도 영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겠죠. 이런 과도한 광고와 경쟁이 사교육에 미쳐있는 대한민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부가 규제하지는 못할망정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 됩니다.
- 사교육으로 무장해서 영재 테스트에 응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우수한 영재 아이들을 교육 시켜야 하는 건 맞지만 창의성과 영재성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올바른 커리큘럼으로 영재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지금도 각 대학 및 사설기관 영재원으로 인한 사교육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진짜 영재가 사교육을 안하면 둔재로 인식되고 문제 잘 푸는 아이는 영재로 인식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만으로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듈들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들어가는 문은 넓히고 수료가 힘든 구조로 갔으면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회상을 반영할 때 물론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현 영재선발도 타고난 영재가 아닌 사교육으로 훈련된-선행학습이 아이들이 됩니다. 영재학교가 확대된다면 유아부터 선행 학습을 시키는 사교육이 쓰나미처럼 몰려 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더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제발 현 학교교육이나 반듯하게 만들어주세요.

-영재학교가 학부모의 주도에 의한 선행학습이 된 아이들을 뽑는 경향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오히려 정말 영재성이 있고 인성이 반듯한 아이가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무엇을 위한 영재학교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 영재학교도 사교육의 과열화의 주범인 듯합니다.

-영재교육을 유초중으로 확대함은 교육 상황을 악화시킨다. 1. 영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그래서 보통 아동도 모두 도전한다. 2. 입시 전쟁의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3. 아동을 분류하기만 하고 키우는 데는 정부가 힘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영재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진짜 영재보다 길러진 영재-사교육이나 열성적인 부모가 알아보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라는 사실은 교사로서 많이 보아온 사례이다.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스펙이라고 학생 스스로 말할 정도이다. 왜곡된 형태의 영재 교육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영재 유치원, 초등학교 등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일찍 빠른 경쟁의 시작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절대로 시행 되서는 안 된다.

-타고난 영재를 길러야 하는데 우린 길러진 영재를 만든다.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가치관 없는 교육이 아닌 학벌 관료제가 아닌 교육은 교육으로 갔으면 해요.

-영재를 따로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선수학습 위주의 영재교육 보다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많이 배워보야 일찍 지칠 수도 있습니다.

-영재교육은 진정한 영재교육이 아닙니다. 운영이나 방법 모두. 아이들을 비교하고 헛된 자만심만 키웁니다. 영재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입시에 목매는 상황에서 절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재교육도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데 영재학교를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이 되는 영재교육은 폐지해주세요. 타고난 영재성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하게 학문적 호기심을 키워주고 본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목표를 둔 영재성학교를 원합니다. 영재성학교가 일류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위한 수단으로의 전략을 막아주세요.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아이나 영재로 뽑힌 아이들을 보면 실제로 영재는 몇 명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맞추다보니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욕심으로 영재선발에 많은 수가 참여해 선발과정부터 힘들고 과열이 됩니다.

-성적우수자를 영재라고 부르는 현 상황 때문에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영재교육은 진짜 연재를 위한 지원에 한정시키고 모든 아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만 한다.

-지금의 고교영재학교만으로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사교육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때 수학과정을 모두 끝내고 심화까지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이 진정한 영재인가?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심성이 제대로 길러질지 걱정스럽다. 영재고를 준비하고 있는 내 조카는 방학이면 하루 12시간을 수학학원에서 보낸다. 중1이지만 수학의 정석까지도 벌써 끝내고 수학경시반에서 학기 중에도 6시간이상 수업을 받는다. 이 모습이 중학교 1학년 철부지 아이의 모습인가? 영재는 태어난 상태가 영재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키워진 영재이다 보니 엄마가 옆에 없을 땐 그냥 평범한 나이일 뿐이다. 제발 아이를 아이답게 살 수 있게 좀 놓아두자.

-영재를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영재학교 등을 늘리는 거보다는 영재학교수와 인원을 최소화 시켜 진정성 있는 영재만을 교육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재학교 등의 인원수가 너무 많아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일단 영재학교 등에 입학시키려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인거 같아 다음세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 때문에 어린학생들은 부모의 욕심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교육으로 내 물리는 형국이다

-현재 고등학교 영재고도 초등 중등부터 준비하느라 과도한 경재유발이 공교육에 피해를 받는 현실입니다. 기존의 영재고 외고도 폐지될 것을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현실에서 절실하게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진짜 영재교육이 아니라 선행학습에 의해 길러진 "영재"라 칭한 아이들을 위한 흔히 말하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집합소입니다. 진정한 영재교육이라면 지금까지 진짜 영재들이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러한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영재교육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영재교육만큼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원도 하자는 의견=**

-교육부는 영재교육보다 부진아를 돕는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교육정책의 방향은 영재교육 등의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부진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하위 10%에 초점을 맞춘 교육입니다. 다수의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발 학생이 가장 불행한 나라의 오명을 벗읍시다.

-현실을 보지 않고 먼 산 바라보는 교육입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교육을 더 확대하려는 것인데 막아야죠.

-1프로의 아이를 뽑는데 20프로가 덤빈다. 영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과 함께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세요.

-영재고등학교도 초등학교부터 꾸준히 사교육으로 준비해야만 사실상 입학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끝없이 줄 세우는 것 외에 실제적인 영재교육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인데, 그 혹독한 사교육 현장으로 어린 영유아까지 내몰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영재교육에 국민들도 함께 몰아가는 이 비상식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지금도 충분히 필요 이상의 틀들에 갇혀서 규격화 되고 있는 것을 정녕 모른다 하시진 않으시겠죠? 공장 상품이 아니라 개개인의 잘함을 살릴 수 있는 진짜 공부를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눈앞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들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제발~~~불쌍한 우리의 미래를 더 불쌍하게 만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영재가 아닌 인위적으로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영재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영재학급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Creative한 인재는 영대학급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 =기타의견=

-특정한 한 집단이 아닌 공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주세요. 사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영혼과 가족의 해체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더 이상 계급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고 교사 당 담당 학생 수 조절과 교원자질 향상에 힘썼으면 한다.

-더 이상 입시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은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린 유아부터 영재가 되기 위해 고통 받는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중심 없이 윗사람들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현 대한민국 교육은 디딤돌 없는 기둥



같이 많이 불안하고 안타깝습니다.ㅠㅠ 기본에 충실 할 수 있는 서열화가 아닌 개성을 존중하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힘 있는 분들이 진정으로 힘써주시길.....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결국 이 법도 여유 있는 부유층들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 것 같군요 ㅠ

-수월성교육이 교육평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교육과 과도한 학습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창의력도 저하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이들 교육환경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험난한 환경으로 내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아 자살률이 세계1위인데 이는 또 다른 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을 더 깊은 사지로 내모는 법안이다. 학교에 와서 아이들 상태가 어떠한지 직접 보고들은 후 정책을 세우기를 간절히 당국에 바라는 바이다.

-저희 집 인근에 영훈 국제중이 있어 생기는 경쟁과 과열된 분위기만 봐도 숨이 막힙니다. 더 이상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은 멈추고 단 한명의 학생도 뒤쳐지거나 소외 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주십시오. 어려서 영재였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 영재성을 잃은 경우가 많아 이런 정책을 수립하려하는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죽이는 학습 그만하고 참교육을 할 정책에 대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사교육과 선행학습 넘칩니다. 좀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공부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험을 위한 문제 푸는 기계는 정말 멈췄으면. 다 같이 죽는 현행 교육 시스템 숨 막힙니다.

-밝게 자라나야할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비교 받으며 영재유치원 입학을 위해 스트레스 받고 보이지 않는 차별대우를 받길 바라지 않아요. 각자의 개성을 발전할 수 있는 특수학교나 만들어 지지해주세요.